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은유란 유사성에 근거하여 한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나타내는 언어적 표현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에 대해 인지언어학자들은 은유란 인간이 대상을 개념화하는 사고의 틀로서 언어적 표현에 선행한다고 ㉠ 보았다. 언어적 표현은 은유라는 사고의 틀을 거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 언어는 대부분 은유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사고와 신체를 분리하는 객관주의를 표방하는 변형생성 언어학자와 달리 인지언어학자들은 사고와 신체를 관련시키는 체험주의를 전제하고, 개념 형성의 기반을 이루는 신체적 경험인 선개념적 경험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면 아래로 허리를 구부려야 하며 머리 위의 물건을 보려면 고개를 위로 들어야 한다. 이러한 신체적 경험이 반복, 축적되면서 ‘위’와 ‘아래’라는 개념이 형성된다. 이처럼 선개념적 경험이란 신체로부터 비롯되는, 개념 형성 이전의 경험이다.

대표적인 인지언어학자인 레이코프는 선개념적 경험을 바탕으로 개념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근원 영역(source domain)과 목표 영역(target domain)을 통해 설명하였다. 근원 영역은 선개념적 경험이 반영된 일상적이고 익숙한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진 영역이고, 목표 영역은 은유를 통한 개념화 이전의 영역으로 낯선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시간이 흐르다.’에서 ‘시간’이라는 목표 영역은 ‘흐르다’ 실체인 근원 영역에 의해 개념화된다. 이렇게 목표 영역을 근원 영역으로써 개념화하는 인지 전략을 레이코프는 개념적 은유라고 칭하였다.

개념적 은유는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이 결합하는 양상에 따라 방향적 은유, 존재론적 은유, 구조적 은유로 구별된다. 방향적 은유는 목표 영역이 방향과 관련된 선개념적 경험으로 이루어진 근원 영역과 결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의 실력이 나보다 위이다.’는 ‘위’라는 근원 영역이 인물에 대한 평가에 결합한 것이다. 존재론적 은유는 근원 영역이 지닌 존재의 자격을 목표 영역에 부여하는 것이다. ‘하려던 말을 삼키다.’는 ‘말’에 삼킬 수 있는 존재의 자격을 부여한 것이다. 구조적 은유는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의 구조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개념화하는 것이다. ‘여행’이라는 근원 영역은 출발점, 목적지, 경로 등으로 이루어지며 여정에 따라 시간이 경과한다는 점에서 ‘인생’이라는 목표 영역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이러한 개념화를 통해 ‘인생은 여행이다.’가 도출되는 것이다.

레이코프는 개념적 은유가 목표 영역에 접근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인식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개념적 은유가 목표 영역의 특정 부분만을 부각하고 개념화되지 않은 다른 부분을 은폐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토론을 전쟁과 관련지어

‘논쟁’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토론의 경쟁적 속성을 잘 드러 내지만, 토론에 대한 부정적 가치 판단을 유도하여 토론이 지닌 의견 교환이라는 상호작용의 측면을 간과하게 한다.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특정 개념에 대한 통념이 지닌 논리적 정합성을 분석하고 있다.
- ② 특정 개념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③ 특정 개념에 대한 이론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④ 특정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제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 ⑤ 특정 개념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절충하여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점]

- ① 은유는 대상의 유사성에 근거한 언어적 표현으로 간주되어 왔다.
- ② 인지언어학자들에 따르면 일상 언어는 은유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 ③ 객관주의와 체험주의는 사고와 신체의 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했다.
- ④ 인지언어학자는 선개념적 경험이 신체적 경험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
- ⑤ 레이코프는 개념적 은유를 익숙한 것으로써 낯선 것을 개념화하는 인지 전략이라고 했다.

3. ‘개념적 은유’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개념 인식과 가치 판단을 분리시킨다.
- ② 근원 영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한다.
- ③ 근원 영역을 축소하는 반면 목표 영역을 확장한다.
- ④ 목표 영역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 ⑤ 효율적인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인식을 제약한다.

6. 공적 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빈부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 ② 기여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 ③ 경제 활동을 하는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다.
- ④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다.
- ⑤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자의 연금을 소득에 비례시킨다.

7.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에서는 출산율 감소가 연금 지급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 ② ㉠에서는 국가가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 연금 지급을 위한 자원에 포함될 수 있다.
- ③ ㉠에서는 국민 소득의 증가가 경제 활동 인구가 납부하는 기여금 총액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 ④ ㉡에서는 기여율 인상을 통해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의 연금액을 높여줄 수 있다.
- ⑤ ㉡에서는 현재의 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이 현재의 경제 활동 세대가 납부한 기여금으로 조달된다.

8.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4점]

- ① 기여금 납부 개시 연령을 높이면서 연금이 소득을 대체하는 정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기여금 납부 기간을 늘리거나 연금 수급 기간을 줄여서 연금 수익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기여율 조정에 따른 가입자의 불만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연금액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기여율은 낮추면서 소득 대체율은 높여서 연금 수급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⑤ 기여금 납부 기간과 연금 수급 기간을 일치시켜 기여금 총액과 연금 총액을 일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보 기>

갑국의 공적 연금 제도에서 기여율은 9%이며 연금 산정 공식에는 '가입자가 퇴직하기 직전 3년 간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A)과 '가입자 개인의 퇴직 전 월 평균 소득'(B)이 포함되어 있다. 연금은 A와 B의 합에 비례한다. 가입자는 퇴직 직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급한다. 현재까지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단, 이 공적 연금 제도의 모든 가입자는 30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한 후 퇴직한다.)

- ① 연금 산정 공식에 A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B가 높은 가입자일수록 소득 대체율이 높겠군.
- ② A가 B보다 큰 가입자는 자신이 수급하는 연금에서 균등 부분이 소득 비례 부분보다 크겠군.
- ③ A를 '가입자가 퇴직하기 직전 9년간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으로 수정하면 갑국의 연금 지출 총액은 감소하겠군.
- ④ 가입자의 수명과 B의 크기가 무관할 때보다 비례할 때에 수직적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작겠군.
- ⑤ 연금 산정 공식에 B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여금을 더 많이 납부한 가입자가 더 많은 연금을 받겠군.

10.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 나눌
- ② ㉡ : 일어나고
- ③ ㉢ : 내야
- ④ ㉠ : 끼치므로
- ⑤ ㉢ : 이루어진

[11~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세포는 인체가 생존하는 내내 분열하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멸한다. 그리고 분열 과정마다 자신의 유전자를 복제한다. 반복되는 분열 과정에서 유전자 복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인체는 이러한 유전자 변이를 스스로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유전자 변이가 축적되면, 정상 세포와 달리 저절로 사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분열하는 암세포가 발생한다.

암세포는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양분과 산소에 비해 항상 과도하게 증식하므로 암 조직 내부는 보통 괴사한다. 이때 암세포가 사멸하면서 방출되는 암 항원이 면역 세포인 수지상 세포에 의해 포식된다. 암 항원이란 암세포 표면에만 존재하는 단백질이다. 수지상 세포는 포식한 암 항원을 항원 조각으로 분해해 표면에 부착한 뒤, 림프절로 이동하여 또 다른 면역 세포인 T 세포와 만난다. T 세포는 ‘T 세포 수용체’(TCR)를 통해 수지상 세포에 부착된 항원 조각을 인식하여 활성화되며, 이때 해당 항원에 대한 면역 기억이 형성된다. T 세포는 혈관을 통해 인체를 돌아다니다가 TCR를 통해 암 항원을 인식하여 암세포를 찾아낸다. 그리고 암세포에 독성 물질을 주입하여 사멸시킨다. 사멸된 암세포에서 다시 항원이 방출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므로, 일반적인 경우 악성 종양이 발생하는 질병인 암이 발병하기 힘들다.

[A]

그런데 암세포가 급속히 증식하는 과정에서 인체의 면역 관문을 활성화하는 유전자가 발현되는 경우가 있다. 인체는 면역 세포가 정상 세포를 비정상 세포로 오인하여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을 막기 위해,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장치인 면역 관문을 갖추고 있다. 가령 T 세포의 또 다른 수용체인 PD-1이 PD-L1이라는 단백질과 결합하면 활성화된 T 세포가 항원을 인식하더라도 해당 항원을 지닌 세포를 정상 세포로 판단해서 공격하지 않는다. 따라서 암세포 표면에 PD-L1을 부착시키는 유전자 변이가 나타나면, 암세포가 T 세포의 공격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 악성 종양으로 발전한다.

종양이 관찰된 경우, 종양을 제거하는 ㉠외과 수술이나 강력한 방사선을 인체에 관통시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방사선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종양이 주변 장기로 전이되거나 암세포가 혈액에 퍼진 경우 적용이 어렵다. 종양이 퍼진 장기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제거가 가능하더라도 혈액 속 암세포에 의해 암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과 수술의 경우 절개 과정에서 장기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방사선 치료의 경우 방사선에 의해 다른 조직이 손상되기도 한다. 따라서 인체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인체 곳곳의 미세한 암세포를 사멸시키기 위해 항암제를 투약한다.

㉢세포 독성 항암제는 암세포처럼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증식하는 세포를 공격하는 약제이다. 하지만 매일 머리카락을 만들어 내는 모낭 세포, 위장 안에서 음식을 소화하는 점막 세포와 같이 증식 속도가 비교적 빠른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는 부작용이 있다.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만의 독특한 분자를 표적으로 삼아

암세포를 공격하는 약제이다. 하지만 표적 분자에 민감해 약제마다 적용 가능한 암 종류가 제한적이고 쉽게 내성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 ㉤면역 항암제는 PD-1 수용체나 PD-L1 단백질을 억제하여 T 세포에 의한 암세포 공격을 유도하는 약제이다. 면역 항암제는 인체의 면역 반응을 이용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암 종류에 대한 제한이 적다. 하지만 종양의 크기가 지나치게 큰 경우 면역 항암제의 치료 효과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종양의 크기가 클수록 암세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하기 때문이다. 이때 ㉦방사선 치료, 세포 독성 항암제 투약 등의 치료가 병행되면 면역 항암제의 치료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1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자가 면역 질환이 심해질수록 암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진다.
- ② 암세포에서는 정상 세포에서보다 유전자 변이 속도가 빠르다.
- ③ 세포의 분열 과정이 반복될수록 암세포가 발생할 확률이 낮아진다.
- ④ 다른 장기로 전이되기 전에 종양을 제거하면 암이 재발하지 않는다.
- ⑤ 악성 종양이 발생하면 주변 조직에 공급되는 양분과 산소가 증가한다.

12.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암세포에서 방출된 항원은 수지상 세포에 의해 항원 조각으로 분해된다.
- ② T 세포는 수지상 세포의 표면에 부착된 항원 조각을 인식해 활성화된다.
- ③ T 세포는 TCR를 통해 암 항원을 지니고 있는 세포를 암세포로 인식한다.
- ④ T 세포의 PD-1 수용체에 PD-L1 단백질이 결합하면 면역 관문이 억제된다.
- ⑤ 암세포 표면의 PD-L1 단백질로 인해 T 세포는 암세포를 정상 세포로 오인한다.

1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과 ㉡은 위치가 확인된 종양에 대해 적용 가능하다.
- ② ㉠과 달리 ㉡은 절개 없이 인체 내부의 종양을 제거할 수 있다.
- ③ ㉠과 달리 ㉢은 작용 범위가 특정 부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 ④ ㉢에 비해 ㉣은 적용되는 암 종류에 대한 제한이 적다.
- ⑤ ㉢~㉤은 암세포의 특성을 이용해 암세포를 직접 공격한다.

14.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4점]

- ① 종양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암세포의 일부가 정상 세포로 회귀하기 때문이다.
- ② 암세포의 총량이 감소할 뿐 아니라 암세포의 사멸로 암 항원이 방출되기 때문이다.
- ③ 면역 세포를 공격하는 암세포의 수가 감소하여 인체의 면역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 ④ 정상 세포의 증식 속도가 감소하여 암세포와 정상 세포가 더욱 잘 구분되기 때문이다.
- ⑤ 일부 정상 세포가 사멸하여 면역 세포가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비율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1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보 기>

‘유전자 복제 오류를 교정하는 유전자’(MMR)에 변이가 발생하는 경우, 세포 분열 과정에서 발생한 유전자 복제 오류가 교정되지 않아 유전자 변이가 축적되고 유전자 변이의 양이 많은 암세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암세포만의 독특한 분자나 암 항원이 많이 만들어지고, 암세포의 분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또한 암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PD-L1 단백질의 양이 많아져서 암세포가 면역 반응을 회피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종양 조직을 검사하여 ㉠ MMR에 나타난 유전자 변이의 정도, ㉡ 암세포의 유전자 변이 정도, ㉢ 암세포에 PD-L1 단백질이 발현된 정도 등을 측정하면 항암제 투약의 치료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

- ① ㉠이 낮은 경우, 암세포에 유전자 변이가 많을 가능성이 낮으므로 면역 항암제의 치료 효과가 작을 수 있다.
- ② ㉠이 높은 경우, 암세포의 분열 속도가 빠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포 독성 항암제를 투약하면 치료 효과는 클 수 있지만 탈모나 소화 불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 ③ ㉡가 낮은 경우, 암세포에서 암 항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낮으므로 면역 항암제의 치료 효과가 작을 수 있다.
- ④ ㉡가 높은 경우, 암세포만의 독특한 분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표적 항암제의 치료 효과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
- ⑤ ㉢가 높은 경우, 암세포가 면역 반응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면역 항암제의 치료 효과가 높을 수 있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떼를 저 몰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띄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아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 **기르게** 되었다.

- 박목월, 「나무」 -

(나)

그 새들은 흰 뺨이란 영혼을 가졌네
거미줄에 매달린 물방울에서 흰색까지 모두
 이 늙지에선 혼하디혼한 맑음의 비유지만
 또 흰색은 지느러미 달고 어디나 가웃거리지
 흰뺨검둥오리가 **피들경** 물을 박차고 비상할 때
 날개 소리는 내 몸 속에서 먼저 들리네
 검은 부리의 새떼로 **늙은** 지금 부화중,
 열 마리 스무 마리 흰뺨검둥오리가 날아오르면
 날개의 눈부신 흰색만으로 **늙은** 홀가분해져서
 장자를 읽지 않아도 새들은 십만 리쯤 치솟는다네
흰뺨검둥오리가 떠메고 가는 것이 이 **늙은** 포함해서
반쯤은 내 영혼이리라
 지금 **늙은 산산조각나기 위해 팽팽한 거울,**
수면은 그 모든 것에 일일이 구겨지다가 반듯해지네

- 송재학, 「흰뺨검둥오리」 -

16.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는 탄식하는 어조로, (나)는 단정하는 어조로 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 ②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나)는 하나의 공간 내에서 묘사의 초점을 바꾸고 있다.
- ③ (가)는 점층적 표현을 사용하여, (나)는 과장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역동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가)는 상승 이미지를 활용하여, (나)는 하강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공간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가)는 색채어의 대비를 통해, (나)는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 대상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1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나무를 만난 '들판'이라는 장소의 구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수도승'과 연결되어 '늙은 나무'에서 떠올린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나무들이 서 있는 '산마루'가 하늘과의 경계라는 화자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 ④ ㉣은 '이미'와 연결되면서, '내 안에 뿌리를 판' 나무에 대한 화자의 뒤늦은 자각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은 나무에서 발견한 자신의 속성을 '뽑아낼 수 없는' 것으로 수용하게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18.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보 기>

(나)의 시인은 늙은 자연물을 보고 듣는 등의 감각적 탐색을 통해 늙과 하나가 되고 있다. 흰뺨검둥오리의 비상은 육신이 세상에 얽매어 있으면서도 영혼의 자유로운 비상을 꿈꾸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묘사한다. 또한 늙은 긴장과 평온의 연속이라는 삶의 진실을 내보인다.

- ① '거미줄에 매달린 물방울'의 모습, 흰뺨검둥오리가 물을 박차고 비상할 때의 '퍼들껍' 소리 등은 시인이 늙에서 감각적으로 탐색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군.
- ② '날개 소리'가 '내 몸 속에서 먼저 들린다'고 표현한 것은, 시인이 늙과 하나가 되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군.
- ③ '흰뺨검둥오리가 떠메고 가는 것'의 '반쯤은 내 영혼이리라'라는 말은, 날아오르는 새들을 바라보며 영혼의 자유로운 비상을 꿈꾸는 존재의 목소리가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군.
- ④ '거울'을 '산산조각나기 위해 팽팽한' 상태로 표현한 것은, 세상에 얽매어 있는 육신의 한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군.
- ⑤ 늙의 '수면'이 '그 모든 것에 일일이 구겨지다가 반듯해지네'라는 말은, 삶의 모든 국면 역시 긴장과 평온의 연속이라는 진실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군.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내용] '나'는 '그'에게 어릴 때 고모할머니와 같은 방을 썼던 기억을 이야기하면서, 밤마다 '나'의 손을 더듬어 찾던 그녀에게 거부감이 들었다고 고백한다. 이후 그가 구해 온 나무뿌리를 보고 그녀를 떠올린 '나'는 그녀의 이름이 '남귀덕'이라고 말한다.

영동에서 구해 온 포도나무 뿌리, 그 뿌리를 나는 며칠 전 다시 보았다. 경북궁 근처 백 년도 더 된 한옥을 개조해 만든 갤러리에서였다. 정희 선배가 찾집 겸 갤러리를 내면서 대학교 때부터 눈여겨본 후배 몇 명에게 전시할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었다.

부엌을 개조해 만든 전시실, 공중 곡예를 하듯 허공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그 뿌리가 영동에서 구해온 뿌리라는 것을, 나는 단박에 알아차렸다. 말리고, 방부제 처리를 하고, 오공본드를 바르고, 솜뎀을 입히는 동안 형태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평 남짓한 전시실 입구 옆 명조체로 '남귀덕'이라고 적힌 작품명을 보았던 것이다.

나는 선뜻 전시실 안으로 발을 내딛지 못했다. 포도나무 뿌리가 드리우는 흰색으로 넘쳐 나는 전시실 천장과 벽과 바닥에 포도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귀가 감도는 그 그림자 속으로 들어서면서 나는 깨달았다. 고모할머니가 이불 속을 더듬어 찾던 것은 단순히 내 손이 아니었다는 걸…… 그녀가 그토록 찾던 것은 흙이었다는 걸. 태어나고 자란 자리에서 파헤쳐져 내팽개쳐진 뿌리외도 같은 자신의 존재…… 일한 장, 꽃 한 송이, 열매 한 알 맺지 못하고 철사처럼 메말라 가던 자신의 존재를 받아 줄 흙이었다고…… 뿌리 뽑혀 떠돌던 그녀의 존재를 그나마 내치지 않고 **뽑어 줄 한 줌의 흙.**

포도나무 뿌리를 구해 오고 두 주쯤 지났을까. 불쑥 작업실에 들른 나는 그가 솜뎀을 떨어뜨리는 모습을 마침 구경할 수 있었다.

포도나무 뿌리로 솜뎀이 떨어져 굳는 순간은 극적인 데가 있었다.

그 순간이 특별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한옥을 개조해 만든 갤러리에 다녀오고 나서야 알았다.

그 순간은, 고모할머니와 그가 만나는 순간이기도 했던 것이다. 액체로 흐르던 솜뎀이 포도나무 뿌리 위로 떨어져 고체로 굳는 순간은. 아무 데도 돌 곳 없던 고모할머니의 손과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자신의 생일조차 모르는 그가 만나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생전 만날 일 없던 두 존재가 만나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기적 같은 그 순간을 솜뎀이 흔들리면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신중하게 정조준하듯 솜뎀을 떨어뜨렸다. 다른 뿌리들에 비해 뒤틀림이 심한 포도나무 뿌리로 솜뎀을 고르게 떨어뜨리는 일은 고도의 집중을 요구했을 것이다.

죽기 전 고모할머니가 살아남은 몇 번째 위안부였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었다. 살아남은 위안부가 55명에 불과하며, 그들도 머지않아 세상을 뜰 거라는 기사를 읽고 난 뒤였다. 내가 알기로

고모할머니는 살아생전 위안부 등록을 하지 않았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비밀을 끝까지 비밀로 덮고 살았던 것이다. 그녀가 세상을 뜨고 몇 년이 흘러서야 어머니가 그녀에 대해 아버지에게 지나가듯 이야기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다. 아홉 시 뉴스를 보다가 위안부 관련 기사가 나오자 어머니는 까맣게 잊고 있던 그녀를 떠올린 것이었다. 어머니는 그녀가 위안부 등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생활 안정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했다.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아 생활하셨으면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하셨을 거 아니에요. 괜히 이 집 저 집 떠돌면서 눈치밥 안 먹고……. ‘생활’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말이 실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징그러운 말인지 그때 나는 깨달았다.

뿌리를 구하러 그가 철거촌도 뒤지고 다닌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흰 방독면으로 입을 가린 인부들이 빈집들의 창문과 문짝을 떼어 내고, 천장을 뜯고, 벽을 허무는 동안 나무를 찾아다녔다.

“철거라고 쓰여 있었어…….”

“……?”

“발치를 앞둔 입처럼 벌어진 대문 너머로 모과나무가 한 그루 보였어. 줄기에 철거라고 쓰여 있었어……. 붉은 라커로 철거라고 휘갈겨 쓰여 있었어…….”

“…….”

“모과나무 줄기에 철거, 철거…….”

그가 고개를 저으면서 철거라고 중얼거릴 때마다 나는 그의 입속 어금니들이 뿌리 뽑혀 뒤흔들리는 것 같았다.

“내 심장과 같은 위치였어…….”

“……?”

“우연이겠지만 내 심장과 같은 위치에 그렇게 쓰여 있었던 거야. 팔을 벌리고 모과나무를 끌어안아 봤거든. 안아 보고 싶어서…… 내 심장과 정확히 같은 위치더군. **철거**라는 단순하고 무시무시한 글자가 하필이면 내 심장과 같은 위치에 쓰여 있었던 거야. 그래서였을까? 철거라는 글자가 인두처럼 내 **심장을 지져오는 것 같았어.**”

㉠ 그가 철거될 모과나무 아래에 서 있을 때 나는 목욕탕 탈의실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머니가 심한 독감에 걸려 혼자서 여탕 청소를 해야 했다. 빗과 드라이어를 정리하다 말고 문득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 어느 쪽도 뚜렷하게 닳지 않은 모호한 얼굴이 누구를 닮았는지 서른아홉 살이 되어서야 깨닫고 있었다. 거울 속 얼굴은 뜻밖에도 고모할머니인 그녀를 닮아 있었다. 무표정한 내 얼굴 위로 그녀의 얼굴이 습자지처럼 겹쳐 떠올랐던 것이다. 놀라운 일이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고모할머니인 그녀의 몸속에 흐르는 피가 내 몸속에도 흐르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이가 제 부모보다 고모나 삼촌을 더 닮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나는 모르지 않았다. 스무 살에 결혼한 친구가 자신의 딸이 배다른 여동생을 닮았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나는 들은 적이 있었다. 그 친구는 심지어 자신의 딸이 배다른

여동생이 하는 행동을, 자신이 끔찍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걸 보고 까무러치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친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배다른 여동생에게 빼앗겼다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거울 아래 어지럽게 흩어진 머리카락들을 주우면서 나는 의문했다. 그녀도 그렇게 느낀 것은 아닌지…… 장조카의 딸인 내가 고모할머니인 자신을 닮았다고 자신을 꼭 닮은 나를 보면서 자신의 어린 날을 떠올렸던 것은 아닌지.

마분지 같은 커튼으로 새벽빛이 스며든다. 빛 한 점 떠돌지 않던 작업실에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번지면서 뿌리의 전체적인 윤곽이 서서히 드러난다. 뿌리가 한 가닥 지평선처럼 떠오른다. 팔 굽기의, 원뿌리는 아니고 곁뿌리다. 취광이 감도는 그 뿌리 너머로 또 다른 뿌리가 떠오른다. 그 너머로 또 다른 뿌리가…….

침침 떠오르는 **뿌리들 너머에** 그가 태아처럼 웅크리고 누워 있을 것 같다.

중중침침 착시를 일으키면서 떠오르는, 지평선 같은 뿌리들을 넘고 넘어야만 **그에게 닿을 수 있을 것 같다.**

- 김숨, 「뿌리 이야기」 -

19.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독백적 진술을 중심으로 인물의 내면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③ 인물의 반복적인 행동을 강조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달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⑤ 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갈등이 심화되는 원인을 드러내고 있다.

20.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그’가 나무뿌리로 만든 작품을 전시한 곳은 오래된 한옥을 개조해 만든 전시실이었다.
- ② ‘나’는 전시실에 들어가자마자 ‘그’가 나무뿌리를 어디에서 구했는지를 알아차렸다.
- ③ ‘나’는 재료의 특성과 관련지어 ‘그’가 작업에 신중을 기하는 이유를 추측하였다.
- ④ 고모할머니는 자신들의 체면을 걱정하는 가족들의 만류로 인해 위안부 등록을 하지 못했다.
- ⑤ ‘나’는 목욕탕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서 고모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렸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보 기>—

이 소설은 뿌리를 매개로 한 이해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끊임없이 회의하던 ‘그’가 뽑혀 나온 뿌리에 친착하고 이를 작품화하는 것은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이자 비슷한 처지의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지켜봐 온 ‘나’는 고모할머니의 삶을 떠올리며 그녀를 이해하게 되고, 소원했던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다.

- ① ‘뿌리를 구하러 그가 철거촌도 뒤지고 다닌다’는 것은, 뽑혀 나온 뿌리에 대한 ‘그’의 친착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임을 알 수 있군.
- ② ‘그’가 ‘철거’라는 글자가 자신의 ‘심장을 지저오는 것 같’다고 한 것은, ‘그’가 뽑혀 나올 모과나무와의 동일시를 통해 자기 존재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고모할머니가 ‘나’의 손을 더듬어 찾던 것이 실은 ‘품어 줄 한 줍의 흙’을 찾고 있었던 것이라고 한 데서, ‘그’의 작품을 본 ‘나’가 자신의 뿌리를 고모할머니에게서 찾게 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④ 뿌리에 촛농이 떨어져 굳는 순간을 ‘생전 만날 일 없던 두 존재가 만나는 순간’으로 본 것은, ‘그’의 작업이 비슷한 처지의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이었음을 ‘나’가 깨닫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나’가 ‘뿌리들 너머’에 ‘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에게 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한 데서,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을 ‘나’가 발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2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점]

- ① 두 인물의 서로 다른 경험을 연결하여 두 경험의 의미를 밀접하게 관련짓는다.
- ② 두 인물의 경험을 대조해서 보여 주어 경험의 의미가 분화되는 양상을 드러낸다.
- ③ 동일한 공간에서의 두 인물의 경험을 제시하여 경험의 서로 다른 성격에 주목하게 한다.
- ④ 선후 관계를 드러내는 표지를 사용해 두 인물의 경험이 서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암시한다.
- ⑤ 두 인물의 경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함께 제시하여 두 경험의 의미가 유사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문장(文章)을 하자 하니 인생식자(人生識字) 우환시(憂患始)*오
공맹(孔孟)을 비호려 하니 도약등천(道若登天) 불가급(不可及)*이로다
이 내 몸 쓸 더 업스니 성대농포(聖代農圃)* 되오리라

<제1장>

홍진에 절고하고 흰 구름으로 벗을 삼아
녹수 청산에 시름업시 늘거 가니
이 등의 무한지락을 **현스홀가 두려웨라**

<제3장>

밭을 갈아 조석 밥을 하고 뉘시 해야 반찬하며
긴 허리에 낮을 차고 **깊은 산의 나무** 하니
내 생애 잇뿐이라 뉘러서 다시 알리

<제4장>

명산의 흰 구름 이니 나는 보미즐거웨라
강 가운데 기러기 가니 나는 보미반가웨라
즐기며 반가와 흥거니 내 벗인가 흥노라

<제7장>

유정코 무심한 것은 아마도 풍진의 벗
무심코 유정한 것은 아마도 강호의 기러기와 해오라기
이제야 작비금지(昨非今是)*을 씨드룬가 흥노라

<제8장>

- 안서우, 「유원십이곡」 -

* 인생식자 우환시 : 사람은 글자를 알게 되면서부터 근심이 시작됨.

* 도약등천 불가급 : 도는 하늘로 오르는 것과 같아 미치기 어려움.

* 성대농포 : 태평성대에 농사를 지음.

* 작비금지 : 어제는 그르고 지금은 옳음.

(나)

남수찬의 상소에 명천 유배 놀랍도다
홀로 떠나려고 하니 한강 풍랑 괴이하다
창망한 행색으로 동대문에서 처벌을 기다리니
고향은 적막하고 **명천이 천리로다**
두루마기 흰 띠 매고 북천을 향해 서니
사고무친 고독단신 죽는 줄 그 누가 알리

(중략)

슬프다 내 일이야 꿈에나 들었던가
이곳이 어디메뇨 주인집 찾아가니
높은 대문 너른 사랑 삼천석꾼 집이로다
본관과 초면이라 서로 인사 다 한 후에
본관이 하는 말이 김 교리 이번 유배
죄 없이 오는 줄은 북관 수령 아는 바요
만인이 울었으니 조금도 슬퍼 말고 나와 함께 노십시다
삼현 기생 다 불러라 오늘부터 놀자꾸나
그러나 내 일신이 유배 온 사람이라
꽃자리에 손님 대접 기억이 무엇이냐
일일이 물리쳐 보내고 혼자 앉아 소일하니

경내의 선비들이 소문 듣고 배우기를 청하며
 하나 오고 두셋 오니 육십 명이 되는구나
 책 끼고 배움 청하며 글재 내어 골라 달라네
 북관의 수령 관장 무장만 보았다가

문관의 명성 듣고 한사코 달려드니

내 일을 생각하면 남 가르칠 공부 없어
 아무리 사양해도 벗어날 길 전혀 없어
 밤낮으로 끼고 앉아 세월이 글이로다
 고향 생각나면 풍월 짓고 심심하면 글 외우니
 변방의 외로운 몸이나 시와 술에 마음 붙여

문밖으로 안 나가고 편히 편히 날 보내다

가을바람에 놀라 깨니 변방 산에 서리 온다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 기러기 처량하고
 북방을 굽어보니 오랑캐 땅이로다

개가죽 상하의는 상놈들이 다 입었고

조밥 피밥 기장밥은 주민의 양식이라

본관의 성덕과 주인의 정성으로

실 같은 이내 목숨 달 반을 붙여 있네
 천만 뜻밖으로 명록이가 집안 소식 가져왔네
 놀랍고 반가워라 미친 사람 되었구나
 변방에 있던 사람 고향에 돌아온 듯

나도 나도 이렇망정 고향이 있었던가

봉투를 떼어 보니 정겨운 편지 몇 장인가
 폭폭이 친척이요 먼먼이 고향이라

종이 위의 자자획획 자식 조카 눈물이요

옷 위의 얼룩은 아내의 눈물이구나

- 김진형, 「북천가」 -

2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계절의 변화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 ③ 명령형 문장을 활용하여 화자의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화자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자연의 모습을 다채롭게 그려 내고 있다.

24.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제1장>의 초장과 중장에 드러난 '문장'을 향한 화자의 의지가 중장에서 강화되고 있다.
- ② <제3장>의 초장에 드러난 '홍진'을 향한 화자의 미련이 중장에서 해소되고 있다.
- ③ <제4장>의 초장에 드러난 '뉘시'에 대한 화자의 관심이 중장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 ④ <제7장>의 초장과 중장에 드러난 '흰 구름'과 '기러기'에 대한 화자의 감흥이 중장에서 집약되고 있다.
- ⑤ <제8장>의 초장에 드러난 '유정'과 '무심'에 대한 화자의 의문이 중장에서 심화되고 있다.

25. (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명천이 천리로다'를 통해 유배지에 대한 화자의 거리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문관의 명성 듣고 한사코 달려드니'를 통해 화자에 대한 선비들의 반응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기러기 처량하고'를 통해 변방에 있는 화자의 서글픈 심정을 자연물에 투영하여 나타내고 있다.
- ④ '개가죽 상하의'와 '조밥 피밥 기장밥'을 통해 화자가 관찰한 생활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본관의 성덕과 주인의 정성'을 통해 유배를 가서도 변치 않는 화자의 충정을 드러내고 있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보 기>

(가)는 작가가 벼슬살이를 단념하고 ‘유원’으로 이주하여 지은 작품이고, (나)는 홍문관 교리 벼슬을 하던 작가가 ‘명천’으로 유배된 경험을 담은 작품이다. 이 두 작품에서는 새로운 공간으로의 이주를 계기로 변화된 삶의 모습과 다양한 정서, 삶에 대한 성찰 등을 발견할 수 있다.

- ① (가)에서 ‘이제야 작비금시’를 깨달았다고 한 것을 통해 새로운 공간에서 삶에 대해 성찰하는 화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 ② (나)에서 ‘사고무친 고독단신 죽는 줄 그 누가 알’겠느냐고 한 것을 통해 이주를 앞둔 상황에서 느끼는 우려를 읽어낼 수 있다.
- ③ (나)에서 ‘종이 위의 자자회획’이 ‘눈물’이라고 한 것을 통해 새로운 공간에서 가족을 떠올리며 느끼는 화자의 슬픔을 읽어낼 수 있다.
- ④ (가)에서 강호에서의 생활을 ‘헌스홀가 두려웨라’라고 한 것과 (나)에서 ‘내 일’을 ‘슬프다’라고 한 것을 통해 이주로 인해 느끼게 되는 고독감을 읽어낼 수 있다.
- ⑤ (가)에서 ‘밭을 갈고’ ‘깊은 산의 나무’를 하며 지낸다고 한 것과 (나)에서 ‘시와 술’에 마음을 붙이고 ‘문밖’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한 것을 통해 이주로 인해 변화된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천신인 대장성과 익성은 천상계에서 쫓겨나 각각 유충렬과 정한담으로 환생한다. 정한담은 명나라를 쳐들어 온 오랑캐와 결탁하여 명나라를 공격한다. 유충렬은 노승에게서 신물(神物)인 일광주, 신화경, 장성검 등을 얻고 공을 세워 대원수에 임명된다.

원수가 기운을 가다듬고 신화경을 잠깐 퍼 남의 기운을 쇠진하게 하고는 장성검을 다시 닦아 광채를 찬란하게 하고 변화 좋은 일광주에 조화를 부쳐 호통을 크게 치며 한담을 불러 말하였다.

“네 놈이 명나라의 작지 않은 중록지신으로서 그 임금을 섬기다가 무엇이 부족하여 충신을 죽이고 부모국을 치려 하니 이것은 만고의 역적이라. 어찌 하늘이 무심하라! 억조창생들이 네 고기를 먹고자 할뿐더러 지하의 귀신이라도 네 놈의 목을 베어 황제 앞에 드리고자 할 것이니 너 같은 만고역적이 살기를 바랄쏘냐. 네 놈을 사로잡아 전후 죄목을 물은 후에 너의 육신을 포를 떠서 종묘에 제사 지내고 남은 고기는 가져다가 우리 부친의 충묘당에 제사 지내고자 하나니 바빠 나와 내 칼을 받아라!”

한담이 듣고 대로하여 응성출마 하거늘, 원수가 맞아 칼로 치게 되면 반합에 죽을 것이로되 사로잡아 죄목을 묻고 원수를 갚고자 하여 장성검을 높이 들고 한담을 치려 하였다. 한담은 간데없고 오색구름이 조각조각 일어나면서 원수의 장성검이 빛이 없어지고 뾰던 칼이 도로 말리었다. 원수가 크게 놀라 급히 물러 나와 신화경 한 편을 의우고 대장성을 세 번 치니 도로 장검이 빛이 나므로, 풍백을 불러 채운을 쓸어버리고 적진을 살펴보는데 한담이 변신하여 십 척 장검을 번득이며 원수를 따라왔다. 원수는 그제야 깨달아 말하기를, “한담은 천신이라 사로잡으려 하다가는 도리어 환을 당하리라.”

라고 하고는 싸우려 하니, 이때 진 앞에 안개가 자욱하며 장성검이 번개가 되어 공중에서 빛나면서 한담을 치려 하니 한담의 몸에 칼이 범하지 못하므로 바로 적진의 뒤로 쫓아 치려 하였다. 한담이 원수를 급히 쫓아오다가 한담의 말이 거꾸러지거늘 원수가 장성검을 높이 들어 한담의 목을 치니 목은 아니 맞고 투구만 벗어졌다. 이때 적진에서 도사가 싸움을 보다가 원수의 칼이 한담의 머리에 범함을 보고 대경하여 급히 ㉠ 징을 쳐서 군사를 거두니, 한담이 쇠진하여 거의 죽게 되었다. 징을 쳐 군사를 거두고 본진에 돌아와 정신이 없어 기운을 수습하지 못하다가 간신히 일어나 앉으면서 말하였다. “선사가 어찌 아시고 징을 쳐 돌아오게 하시니까.”

도사가 말하였다. “적장의 칼에 장군의 투구가 깨어지므로 만분 위태하기로 징을 쳐 군사를 거두었노라.” 한담이 대접하여 그제야 머리를 만져 보니 과연 투구가 없으므로 새롭게 놀라 하면서 말하였다.

[A] “적장은 분명 천신ियो 사람은 아니로다. 내 재주를 십 년을 공부하여 사람은커니와 귀신도 측량하지 못하였다. 마룻과 최일귀가 죽는 것을 보고 조심하여 십 년 배운 술법을 오늘날 다 베풀어 잡으려 하다가, 잡기는커녕 기운이 쇠진하여 거의 죽게 되었더니 천행으로 선생의 구하심을 입어 목숨이 살아났노다. 그러나 이제 천만 가지로 생각해도 힘으로는 잡을 수 없삽고 선생의 깊은 재주나 바라나이다.”

도사가 이 말을 듣고 한담이 서늘하여 한참 생각하다가 군중에 전령하여 진문을 굳게 닫고 한담을 불러 말하였다.

“적을 잡으려 할진대 인력으로는 잡을 수 없으니 군중의 기계를 모아 여차여차하였다가 적장을 유인하여 진문에 들도록 하면 제 비록 천신이나 피할 길이 없으리라.”

한담이 곧 심중에 크게 기뻐하여 도사의 말대로 약속을 정하고 며칠 지난 후에 갑주를 갖추고 진문에 나서 원수를 불러 말하였다.

“충렬야, 네 한갓 혈기만 믿고 우리를 대적하려 하니 후생이 가외라*. 빨리 너와 자웅을 결단하려 하니 바빠 나오라!”

이때 유원수가 의기양양하여 진 앞에 횡행하다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응성하고는 맞아 나와 일합이 못 되어 거의 잡게 되었는데 적진에서 또한 ㉡ 징을 쳐 군사를 거두었다. 원수가 승승하여 바로 적진을 헤쳐 장대에 달려드니 장대에는

복소리만 나면서 난데없는 흙비와 안개가 사방에 가득하여 지척을 분별할 수 없었다.

가련하다. 총렬이 적장의 피에 빠져 함정에 들었으니 목숨이 경각에 있었다. 원수가 대경하여 신화경을 펴 놓고 대문을 다 본 후에 몸을 감추어 안손뼉을 베풀어 진중을 살펴보니 한담이 토굴을 깊이 파고 그 가운데 기치창검*을 살대같이 세우고 사방신장*이 나열하여 독한 안개와 모진 사석을 사면으로 뿌리면서 함성을 크게 내며 항복을 재촉하였다. 그제야 적장의 간계에 빠진 줄을 알고 신화경을 외우면서 육정육갑을 베풀어 신장을 호령하여 운무를 쓸어버리라 하니 이윽고 일기가 맑아지고 함정에서 솟아 나왔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한담은 총렬의 아버지를 사칭하여 편지를 보낸다.

‘(전략) 만일 나의 말을 듣지 못하면 죽은 혼백이라도 돌아가서 자식이라 하지 않고 무지한 귀신이 되어 청천에 똥똥 떠서 자식을 없는 듯이 하리라. 총렬아, 너의 아버 목숨이 오늘 오시가 되면 동문 대로에서 칼 아래 혼백이 될 것이니 그 아니 망극한가. 아버 경상을 생각하여 빨리 항복하고 **어서 와서 살려 내어라**. 할 말이 무궁하나 흥격이 답답하고 목숨이 경각에 있어 황황망극하기로 아들 총렬아, 총렬아 그만 그치노라.’

라고 하였다. 원수 편지를 받아보고 정신이 아득하여 인사를 모르다가 겨우 진정하여 천자에게 들어가 이 편지를 드리면서 말하였다.

“이 글을 보옵소서. 폐하가 전날에 아버의 글씨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소장의 아버 수적*인가 보아 주옵소서.”

천자와 태자가 이 편지를 보신 후에 박장대소하시고 원수를 위로하여 말하였다.

“그대의 부친이 죽은 지 오래인지라. 죽은 혼백이라도 그렇게 할 리가 없거니와 글씨는 난생 처음이라. 설령 [B] 살았을지라도 그렇게 할 리가 없거니와 이러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니 원수는 염려 말고 정한담을 잡아 꼭질을 물어본즉 짐의 말을 옳다 하리라.”

원수 물러 나와 생각하되,

‘전날 강 승상을 만났을 때에 떡라수에 부친의 필적이 벽에 붙었으므로 죽은 것은 확실하거든 어찌 적진에 돌아와 이 편지를 부치리오. 그러나 **마음이 심란**하여 적진을 쳐서 정한담을 사로잡아 꼭질을 물어라.’

라고 하고 일광주를 다시 쓰고 황룡수를 거느리고 봉의 눈을 부릅뜨고 장성검을 높이 들고 신화경을 손에 들고 천사마를 급히 몰아 진영 앞에 나서면서 한담을 불러 말하기를,

“네 놈이 간사한 피로 나를 항복받으자 하거니와 내 어찌 모를쏘냐. **바빠 나와 칼을 받으라!**”

라고 하니 한담이 황겁하여 **도성**에 들어가 선봉으로 군문을 지키게 하고 나오지 않았다.

- 작자 미상, 「유총렬전」 -

* 기치창검 : 깃발과 창과 검.
* 후생이 가외라 : 뒤에 태어난 사람이 두려울 만하다.
* 사방신장 : 신병을 거느리는 신장.
* 수적 : 손수 쓴 글씨나 그린 그림.

2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총렬은 죄를 묻고 원수를 갚기 위해 한담을 사로잡으려 하였다.
- ② 총렬을 쫓던 한담은 말이 거꾸러지는 바람에 위기에 처했다.
- ③ 한담은 본진에 돌아온 후에야 자신의 투구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다.
- ④ 한담은 시야가 제한된 장대 위에서 총렬과 자웅을 겨루었다.
- ⑤ 총렬은 적의 진중을 살펴 토굴을 확인하고 한담의 계획에 당한 것을 깨달았다.

2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과 ㉡은 모두 한담을 방심하게 하여 그의 군대가 패배하게 하는 원인이다.
- ② ㉠과 ㉡은 모두 도사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독단적으로 일으킨 일이다.
- ③ ㉠은 한담이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게 하고, ㉡은 총렬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 ④ ㉠은 총렬에게 의심을 유발하는 계기이고, ㉡은 총렬에게 아쉬움을 불러일으키는 계기이다.
- ⑤ ㉠은 한담을 불러들여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은 총렬을 자극하여 위기에 빠지게 한다.

29.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에서는 상대방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고, [B]에서는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있다.
- ② [A]에서는 상대방을 칭찬하고 있고, [B]에서는 상대방의 능력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 ③ [A]에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B]에서는 상대방의 슬픔에 공감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고, [B]에서는 상대방의 생각을 고치려 하고 있다.
- ⑤ [A]에서는 상대방이 겪는 갈등을 간파하고 있고, [B]에서는 자신이 겪고 있는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보 기>—

이 작품에서 주인공과 반동 인물의 대결은 천상계에서의 천신 사이의 대결이 인간 세계에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숙명적이다. 또한 충효라는 윤리적 정당성을 지닌 주인공과 비윤리적인 반동 인물이 대결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이기도 하다. 윤리성을 실현하려는 의지는 반격의 기회를 노리는 반동 인물에게 이용되기도 한다.

- ① 충렬이 한담을 잡아 ‘부친의 충묘당’에 제사를 지내겠다고 말하는 것에서, 주인공이 반동 인물과 대립하는 이유가 효라는 윤리성을 실현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충렬과 한담이 서로가 ‘천신’임을 알아보는 것에서, 천상계에서의 대립 관계가 인간 세계에서 두 인물의 숙명적 대결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한담이 충렬에게 ‘어서 와서 살려 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은, 한담이 윤리성을 실현하려는 충렬의 의지를 이용하려는 계책임을 알 수 있군.
- ④ 천상계에서의 대결이 ‘천자와 태자’를 모시는 충렬과 반대편에 선 한담 간의 대결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간 대결을 숙명적인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충렬이 ‘심란’한 ‘마음’을 이겨내고 한담을 ‘도성’ 안으로 물리치는 것에서, 상실했던 윤리적 정당성을 회복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